



마라톤 세계新

베를린마라톤 게브르셀라시에 2시간3분59초

종전 기록 27초 앞당겨

베를린 마라톤에서 2시간3분59초의 세계 신기록이 수립됐다.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게브르셀라시에에는 28일 베를린에서 열린 베를린마라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세계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게브르셀라시에의 기록이 공식 확인되면 자신의 기록을 무려 27초나 단축한 기록이다. 게브르셀라시에에는 지난해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계 최고기록(2시간4분26초)을 세운 바 있다.

게브르셀라시에 이전 세계기록은 폴 테타이 갖고 있었다. 게브르셀라시에에는 지난해 10월 폴 테타이 갖고 있던 세계기록을 깨고 2시간4분26초의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게브르셀라시에에는 이날 처음부터 선두로 치고나왔으며 절반을 뒀던 시점에서 이미 종전 자신의 기록을 25초나 줄여 세계신기록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게브르셀라시에(사진 가운데)가 28일 열린 제 35회 베를린 마라톤 경기에 앞서 분장을 한 다른 출전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게브르셀라시에에는 이날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연합뉴스

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었다.

그는 이날 결승선을 6km나 남겨놓은 상황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모두 멀찌감치 따돌린 채 독주를 계속한 끝에 세계 최초의 2시간3분대 주파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세계신 기록을 수립했다.

'티타임 착각' 앤서니 김 난조

뒤늦게 몸도 못풀고 경기

5언더...공동 2위로 '미끌'

PGA 투어 챔피언십 3R

불같은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의 상승세가 티타임을 착각하는 실수 하나로 발목이 잡혔다.

라이더컵에서 맹활약을 펼친 데 이어 시즌을 마감하는 '올스타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이를 동안 선두를 달리던 앤서니 김은 28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골프장(파 70·7천154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2오버파 72타로 부진했다.

3언더파 67타를 때린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가 중간합계 8언더파 202타로 단독 선두로 나선 가운데 앤서니 김은 3타 뒤진 공동2위(5언더파 205타)로 내려앉았다. 더구나 세계랭킹 2위 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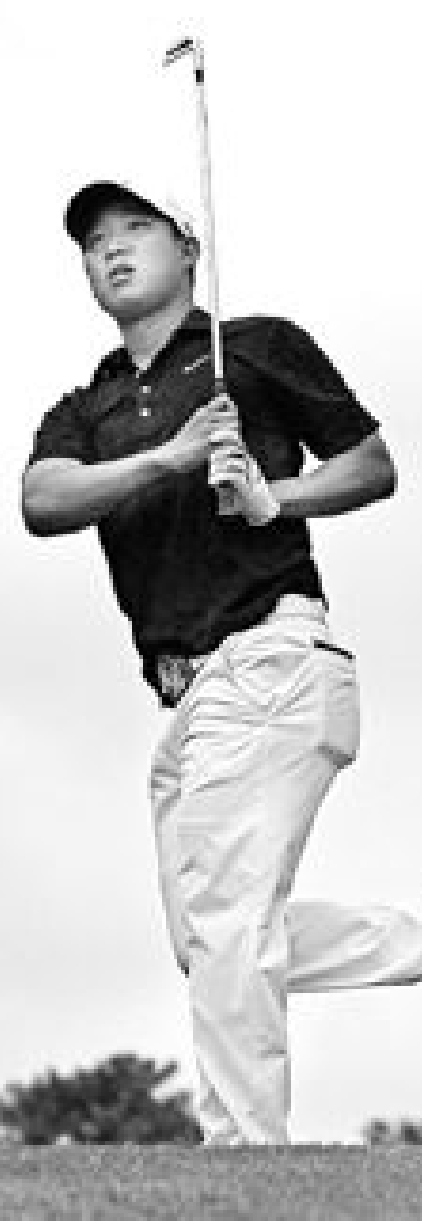
켈스(미국)이 1타를 줄이며 공동2위에 합류하면서 최종 라운드 챔피언십권에도 밀려났다.

버디 1개에 보기 3개를 쏟아낸 앤서니 김은 페어웨이 안착률 29%, 그린 적중률 56%, 그리고 홀당 퍼팅수 2개 등 한마디로 난조였다.

9번홀에서는 티샷한 불에 관중이 맞아 병원에 실려가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2라운드가 끝난 뒤 3라운드 티타임을 눈여겨보지 않았던 앤서니는 3라운드 경기 시간을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55분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 티타임은 11시25분이었다. 느즈막이 경기장에 도착한 앤서니는 이런 사실을 알고 부랴 부랴 경기 준비를 서둘렀고 몸을 풀 시간도 부족했다.

벤 커티스(미국)와 로버트 엘런비(호주)가 2언더파 208타로 공동 5위에 오른 가운데 최경주(38·나이키골프)는 이븐파 70타를 쳐 7위(1언더파 209타)로 7위를 달렸다. 비제이 심(피지)은 2오버파 72타를 쳐 공동 24위(9오버파 219타)로 처졌다.



28일(한국시간) 미국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골프장에서 열린 PGA투어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앤서니 김이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무명' 송기준 2위

KPGA 삼성베네스트오픈 최종

앤드류 매켄지(호주)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데뷔 첫해에 우승했다.

외국인선수 켈리파인스를 통해 국내 무대에 뛰어든 매켄지는 28일 경기도 가평 가평베네스트골프장(파71·7천14야드)에서 열린 삼성베네스트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6언더파 278타로 송기준(21·우리골프)과 동타를 이룬 뒤 연장 첫번째 홀에서 승리를 거뒀다.

매켄지는 지난 5월 레이크힐스오픈에서 우승한 앤드류 루던(호주)에 이어 올 시즌 두번째 외국인 우승자가 됐다. 무명의 송기준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18번홀(파)에서 이어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티샷을 오른쪽 언덕 위 해저도로 날려버리는 바람에 모처럼 찾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

연장 첫번째 홀에서 송기준은 티샷이 밀리면서 역새로 뒤덮힌 언덕으로 날아갔고 1벌타를 받고 드림해 네번만에 그린 위에 올랐지만 우승컵은 사실상 매켄지에게 넘어갔다. 송기준이 보기도 좋아우한 뒤 매켄지는 퍼퍼트를 침착하게 성공시켜 우승컵과 함께 상금 1억2천만원을 받았다.

유승민·주세혁 4강행 실패

월드컵 탁구대회

남파탁구 '간판' 유승민과 '수비 달인' 주세혁(이상 삼성생명)이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와 함께 세계 '빅3' 대회인 2008월드컵대회에서 8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승민은 28일(한국시간) 벨기에 리에주에서 열린 대회 단식 8강에서 유럽의 강호 티모 불(독일)에게 0-4(6-11 8-11 8-11 4-11)로 져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반면 세계랭킹 1위인 지난 대회 챔피언 왕하오와 신에 마롱(이상 중국)은 드미트리오브차로프(독일)와 베르너 쉘라거(오스트리아)를 각각 4-1로 꺾고 4강에 진출, 각각 크레앙, 불과 결승 진출을 다룬다.



- 29일(월)
 - ▲2008 PGA 투어 챔피언십 FR(03 : 00·SBS스포츠·SBS골프)
 - ▲2008 LPGA 나비스타 LPGA 클래식 FR(08 : 00·SBS골프)
 - ▲청소년국제축구대회 결승전(14 : 50·KBS2)
 - ▲제3회 FILA가 전국 리틀야구대회 결승전(17 : 00·MBC ESPN)
 - ▲KBSN복싱스페셜 PABA 슈퍼험터급 타이틀매치(광석 : 파리아 조키진)(20 : 00·KBS N SPORTS)

‘올림픽 챔피언’ 꺾고 ‘월드컵 챔피언’ 되다

우크라이나 루반 112-110 제압

FITA 양궁월드컵 파이널 우승

임동현(한국체대·사진)이 양궁 월드컵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며 베이징올림픽 16강 탈락 아픔을 달랬다.

임동현은 지난 27일 밤 스위스 로잔 몽베농 카치노공원에서 열린 2008 국제양궁연맹(FITA) 양궁월드컵 파이널대회 결승전에서 베이징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빅토르 루반(우크라이나)을 112-110(120점 만점)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한국 공사가 1~4차 양궁월드컵 우승자끼리 겨루는 파이널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06년 첫 대회 박경모(인천계양구청) 이래 두번째. 임동현은 상금 2만 달러를 받았다.

임동현은 준결승전에서 로맹 지르유(프랑스)를 108-105로 제친 뒤 결승전에서도 첫 세 발부터 29-26으로 앞서간 끝에 2점차 우승 영광을 안았다.

박경모는 준결승전에서 베이징올림픽 개인전 결승전에서 1점차로 진 루반과 '올림픽 복수전'을 벌였지만 또 한번 108-109, 1점차



로 패배했고, 3·4위전에서도 지르유와 109-109로 비긴 뒤 한발씩 더 쏘는 슈오프 대결에서 8-9로 밀리며 4위에 머물렀다.

여자부에선 박성현(전북도청)이 유스티나 모스파넬(폴란드)에게 107-109로 져 준우승을 차지했고 윤옥희(예천군청)는 3·4위전에서 나탈리아 발리바(이탈리아)를 113-105로 눌렀다. 여자부에선 한국 선수가 챔피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최홍만 복귀전 기권패

모나코 하리 상대 연장 포기

K-1 서울 월드컵프리

'테크노 폴리앗' 최홍만(28)이 9개월 만에 치른 종합격투기 K-1 복귀전에서 바다 하리(24·모로코)에게 기권패를 당했다.

최홍만은 지난 27일 오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K-1 월드컵프리 2008 서울대회 16강 토너먼트에서 3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판정 결과가 1-0(29-28 28-28 28-28.최홍만 우세)으로 나와 연장전에 돌입할 수 있었지만 한 번도 기회를 선인했다. 심판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동점을 줄 경우에는 연장전을 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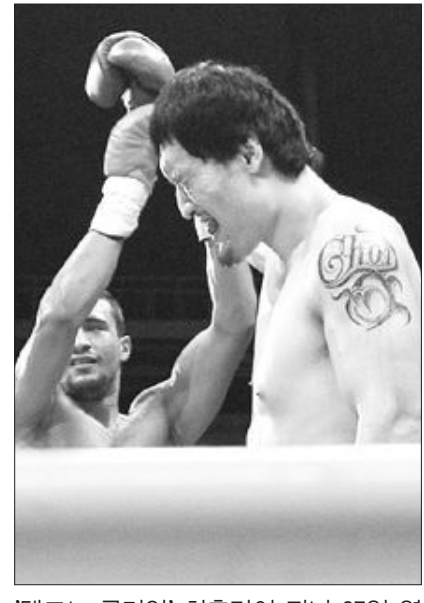
작년 말 표도르 에멜리아넨코(32·러시아)와 대결 이후 처음으로 링에 오른 최홍

만은 이번 패배로 12월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8강행 티켓 획득에 실패했다.

최홍만은 또 지난해 12월 제프르 뵈너(35·프랑스)와 표도르에게 잇따라 진 데 이어 3연패를 당했고 격투기 개인 통산 6번째 패배(13승)를 안았다.

최홍만은 관중 1만 5천여 명의 열렬한 응원 속에 2라운드 시작 45초 만에 왼손쪽에 이은 오른손쪽을 잇따라 하리 머리에 적중시키며 한 차례 다운을 빼앗기도 했다.

최홍만과 하리 둘은 마지막 3라운드에서 대등하게 경기를 펼쳤지만 서로 이렇다 할 결정타는 날리지 못했다. 최홍만은 결국 판정에서 1-0으로 우위를 보인 가운데 심판 두 명이 하리와 같은 점수를 주면서 연장전을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최홍만 세 분이 한씩 타일을 링 안에 던지면서 기권을 표시, 경기는 하리의 승리로 심판이 끝이 났다.



'테크노 폴리앗' 최홍만이 지난 27일 열린 K-1 월드컵프리 2008 서울대회 16강 토너먼트에서 바다 하리(모로코)에게 기권패를 당한 뒤 힘든 표정을 짓고 있다.

앞서 열린 오픈닝 매치에서는 투포환 선수 출신 랜디 김(33)이 일반적으로 몰아붙인 끝에 '태권 파이터' 박용수(27)를 2라운드 TKO로 제압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대)223-1140, 5210 헬 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상 분양과 임대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들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383-5221 헬 011-609-5221
(구상무대 정문)

▶ 건물
- 대607/건1,352 보36억/월 3,000만원 매대가 85억
- 대142/건200 보1억/월세 1,000만원 매대가 15억 5천만원
- 대260/건2,000 보20억/월 4,000만원 용지 18억 매가 65억
- 대200/건900 보30억/월 2,000만원 매대가 55억
- 대300/건1,200 보4억/월 1,100만원 매대가 24억
- 대126/건175 보1억/월 800만원 매대가 15억5천

▶ 땅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 3,421㎡(1,050평) 3.3㎡당 700만원
- 2,800㎡(850평) 3.3㎡당 1,200만원
- 727㎡(220평) 3.3㎡당 1,200만원(용지 450㎡(136평) 3.3㎡당 850만원(용지 330㎡(100평) 3.3㎡당 800만원(사역 임구)
(기타지구)
- 자연녹지 대토번 3,000평(예수장, 학원지역) 평당 180만원
- 생산녹지 대토번 3,000평(예수장, 학원지역) 평당 250만원
- 주거지역 800세대 0.8㎡당 877㎡(266평) 3.3㎡당 350만원(슈퍼지역)
- (농진) 관산구 동산동 73,000㎡(2만 2천평) 농장 3.3㎡당 920만원(동산동)
(생촌동) 대지 512㎡(155평) 20m 도로 접 3.3㎡당 265만원
(장동동) 3,760㎡(1,140평) 평당 40만원

▶ 병원·학원·슈퍼·식당 기타
- (8남상정출판사)인 시(구리차도) 근린지구1,652㎡(500평)㎡당 600만원

▶ 모텔·호텔매매·사우나
- 객실35개 용지16억 매가128억
- 객실70개 매가168억

★24시간 전화 물건 접수합니다★

금보부동산컨설팅
☎(대)261-8949 헬 011-602-2233
(신수동 543-51(무당대입구 건너편))

▶ 산당매매
- 동구 산수동 28㎡(대토번) 대지720.6㎡ 매가 6억 5,000만원(금보 주주, 병의원, 불후 학교지)
- 동구 관음동 산당지 1,941㎡ 매가 2억 4,000만원
- 동구 관음동(정목동)2차선 150㎡(대지) 2,800㎡(대지) 매가 1억 3,000만원
- 대안동 남해 구산동 개천동(대지) 1,869㎡(대지) 매가 1억 5,000만원
- 대안동 남해 구산동 개천동(대지) 1,869㎡(대지) 매가 1억 5,000만원
- 대안동 남해 구산동 개천동(대지) 1,869㎡(대지) 매가 1억 5,000만원
- 대안동 남해 구산동 개천동(대지) 1,869㎡(대지) 매가 1억 5,000만원

▶ 원룸부지매매
- 동구 산수동 28㎡(대토번) 164세대 매가 1억 2,000만원
- 서구 화정동 208㎡(대토번) 12세대 매가 1억 2,000만원
- 동구 지산동 126㎡(대토번) 매가 5,000만원

▶ 건물매매
- 남구 봉선동 대지 148㎡ 2343㎡(지하 3층) 보36억 매가 11억 9,000만원
- 남구 봉선동 대지 148㎡ 2343㎡(지하 3층) 보36억 매가 11억 9,000만원
- 남구 봉선동 대지 148㎡ 2343㎡(지하 3층) 보36억 매가 11억 9,000만원
- 남구 봉선동 대지 148㎡ 2343㎡(지하 3층) 보36억 매가 11억 9,000만원

▶ 고시원 및 원룸주택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237㎡ 전 525.66㎡ 1층 담장 2.4층 월세 보36억 4,000만원 월 500만원 매가 5억
- 남구 주월동 대지 237㎡ 전 525.66㎡ 1층 담장 2.4층 월세 보36억 4,000만원 월 500만원 매가 5억
- 남구 주월동 대지 237㎡ 전 525.66㎡ 1층 담장 2.4층 월세 보36억 4,000만원 월 500만원 매가 5억
- 남구 주월동 대지 237㎡ 전 525.66㎡ 1층 담장 2.4층 월세 보36억 4,000만원 월 500만원 매가 5억

▶ 주유소매매
- 관산구 소문동 대지 1,378.5㎡ 전 297㎡ 주유소 222평 매가 13억(8억 7천 포함)
* 주유소 부지, 시외 주유소 마을 다량 보유 한림 한림 등 부지, 건물, 임대 건 등 다량 보유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토지구할 수완지구 건축상담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토지매매
▶ 수완지구 333-1(병의원가능) 60미터 대토번 상업용지, 3언더도
▶ 주거용지 720㎡ 3.3㎡당 600만원
▶ 수완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정문 임구 상업용지 500㎡ ㎡당 210만
▶ 수완지구 단밀형 170세대 정문 앞 주차지 330㎡ 3.3㎡당 450만원
▶ 관산구 수완동 35㎡ 대토번 자연녹지 답 1,782㎡ 4,231㎡ ㎡당 70만(분할가능) 있음 매가 12억 3천만원

노블메디칼센터 임대분양

▶ 수완지구 중심상업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시장, 안경점, 부동산, 이마트상업
- 2~5층 :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아파트와 등 임대중형수 20량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옆의 주차장 설치로 주차량 100% 확보

***1층 파라케트 임점확정**
2층 파파존스 피자 임점확정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함
Tel: 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할 수완지구 건축상담

정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완역지개발지구
아주저렴한
협의의도안택지
생활대차용지

신창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세 122평 80평

주유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골프연습장 : 120억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분류공부부지 2900 2600 4900평
수완동 4차선지 1200평 1800평
북구문충동 850평

전용가능한급매물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진입가능 6차선지
생산녹지 : 2800평-평등공인건권 특가상당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골프장 측사 등)
담양 25만평 정선 14만평 보성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장
하남공단 800평

향촌동 260평
2층주거지역 긴급처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화순읍 주거지역 2400여평
공공
하남공단 800평

건물 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 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 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